

한·칠레 FTA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이근영*

The Appraisal and Political Suggestion of Korea · Chile FTA

Keun-Young Lee *

요 약

한국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지난 2004년 4월 1일부터 발효된 한·칠레 FTA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칠레 시장에서 다른 국가들과 거의 동등한 조건에서 영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FTA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시켰으며, 또한 인근 중남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었다고 평가된다.

FTA 발효 이후 한국은 자동차, 휴대폰, 컬러TV 등 당초 기대했던 공산품을 중심으로 높은 수출증가를 보이고 있는 반면 우려하던 농·수·축산품의 수입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한편, 한·칠레 FTA 추진과정에서 나타났던 추진기구의 취약성과 농민단체, 관련업계 등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사이의 계층간 충돌 그리고 정부의 홍보 부족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했던 점 등은 우리나라가 향후 FTA 추진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중요한 시사점이다.

Abstract

FTA is the key post in international trade policy together with WTO. This paper studies the appraisal of bilateral Free Trade Association among Korea and Chile which has been started from April of last year. After FTA our actual results of export to Chile has been increased as forecasted but import from Chile hasn't increased as anxiety. Also Korea · Chile FTA gives us a political suggestion for propulsion of FTA with another countries hereafter.

▶ Keyword : 자유무역협정(FTA), 세계무역기구(WTO), Political Suggestion.

• 제1저자 : 이근영
• 접수일 : 2005.09.27, 심사완료일 : 2005.10.28
* 경원전문대학 비서과 교수

I. 서론

부존자원과 자본이 부족하고 국내시장이 협소한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수출이었다. 그러나 국제무역환경은 NAFTA, EU, ASEAN 등의 지역경제 BLOC과 쌍무 국가간 경제협정이 활발히 확산되는 가운데 각국은 국가간·지역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을 체결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WTO에 따르면 2005년 1월 현재 세계적으로 총 162건의 FTA가 발효 중에 있고, 연말까지 FTA 역내국 간 무역이 세계무역의 5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FTA 체결 경쟁에서 낙오되는 국가는 세계시장의 진입 및 선점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불리해질 수도 있다.

자유무역협정(FTA)란 경제통합의 한 형태로서 '체결국 사이에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 있어 관세 및 기타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따라서 역외국가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함이 초래된다[1].

한편 뒤늦게 FTA협정 체결의 대열에 합류한 우리나라는 2004년 4월 1일부터 발효된 한·칠레 FTA를 계기로 한·싱가포르에 이어서 2005년 8월 12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FTA 체결에 합의하였으며, 계속해서 일본, 캐나다, ASEAN 등과 동시다발적으로 FTA협상을 추진하고 있다[2].

칠레는 중남미지역의 중심 국가로서 이미 EU, 캐나다, 멕시코 및 중남미 국가 등 10개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과도 조만간 FTA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한·칠레 FTA 발효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칠레 시장에서 다른 국가들과 거의 동등한 조건에서 영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인근 중남미시장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었음은 물론 FTA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더불어 국내 FTA 기반의 강화로 향후 다른 지역과의 FTA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3].

이와 같이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기로 한 이유는 정부의 개혁과 개방정책 촉구, 세계적 지역주의 확산에 대한 대응, 안정적 수출시장 확보, 한국기업의 취약성 극복, 소비자 후생 증대, 해외투자의 적극적 유치 및 해

외거점지역의 확보, 정치적 동반자 관계 형성 등을 들 수 있다[4].

본 논문에서는 FTA에 대한 일반적인 무역·경제적 기대효과를 고찰한 후 향후 한국이 FTA 대상으로 고려할 국가에 대한 선정조건을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2004년 4월 1일부터 FTA협정이 발효된 한·칠레 FTA의 무역효과를 평가한 후 나타난 문제점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FTA 대상국가의 선정조건

2.1 대상국가의 선정시 고려사항

FTA를 체결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우리나라가 안정적인 해외 수출시장 확보를 통한 무역창출효과와 더불어 정치·안보적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상국을 선정해야 한다. 이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시장규모는 클수록 유리하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무역·서비스 교역에서의 잠재력뿐만 아니라 내수시장을 타깃으로 직접투자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EU 및 BRIC'S (Brasil, Russia, India, China)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경쟁정도를 살펴보면 상호 경쟁이 심화되는 품목(산업)이 많을수록 FTA효과는 떨어지며 상호 보완적인 상품(산업)이 많을수록 FTA효과는 커진다. 한·칠레의 경우 한국은 전자·자동차·선박 등 공산품의 경쟁우위가 있는 반면 칠레의 경우에는 원자재·농산물의 경쟁우위가 뚜렷한 국가로서 이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FTA 상대국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지역 경제권의 무역 교두보 역할국가로서의 중요성이다. 칠레는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와 FTA를 맺고 있어 한·칠레 FTA 체결은 칠레를 중남미 지역 진출의 발판으로 활용하여 중남미 전 지역을 진출할 수 있는 전략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 측에서는 적극적이거나 멕시코 측의 사정으로 협상이 중단되고 있는 한·멕시코 FTA는

NAFTA 진출의 교두보로서 의의가 있으며 싱가포르도 이 범주에 속하는 나라이다.

넷째, 통상마찰 완화와 관련하여 한국은 중국과 더불어 WTO로부터의 제소 및 미국과의 통상 분쟁이 가장 많은 나라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한·미 FTA 체결로 분쟁해결을 위한 사전 예방 및 방지 규정을 통해 이를 수월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오늘 날과 같이 탈 이념시대에는 FTA가 국가간의 외교 및 안보협력 강화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남북한 분단이라는 특수한 정치적 상황에서 FTA 체결을 통해 여러 국가와 정치적·외교적 연대감을 강화시킬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의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EU는 통합 초기부터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회원국간의 연대를 통한 유럽 대륙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 형성되었으며 미국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스라엘 및 요르단과 FTA를 체결했고, 대만 역시 외교적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 FTA 체결에 힘을 쏟고 있다[5].

2.2 한국의 FTA 추진현황

한국은 1997년 11월 외환위기(currency crisis)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경제개혁과 더불어 안정적 수출 시장 확보와 해외직접투자 유치 등을 위해 1998년 11월 5일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개방정책의 하나인 FTA를 추진하기로 공식 결정하고, 2003년 2월 칠레와 한국 사이에 한국 최초의 FTA를 체결하여 2004년 4월부터 발효 중에 있다. <표 1. 참조>

표 1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상황
Table 1. Driving status of Korea FTA

| FTA 추진 단계 | 대상 국가 | 추진단계 |
|-----------|-------|---|
| 준비 단계 | 미국 | - 미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의가 있다는 제의를 한국 측에 비공식 채널을 통해 전달(2004.8). - 2006년 2월부터 FTA 협상에 따른 쟁점 점검 |
| | 중국 | - 한중 경제통상 공동연구팀 발족 검토 |
| 산학관 공동 연구 | 인도 | - 2006년 중 협상개시 예정. |
| | 멕시코 | - 2004년 10월 공동 연구, 국내검토 완료 - 멕시코 정부 FTA 체결 제외 거절(2003.9)로 중단. |

| | | |
|---------|----------|--|
| | | -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ECA) 체결 합의 (2005.9) |
| | MERCOSUR | - 2006년 공동 연구 (포괄적인 통상 협정에 대한 검토). |
| | EFTA | - 국내검토 완료 - ASEAN+3 정상회의에서 중장기적 검토 합의. |
| 본 협상 진행 | ASEAN | - 2005년부터 공식 협상을 시작, 2006년 체결 목표 - 2009년 말까지 상호 단계적으로 관세 철폐 제안. |
| | 캐나다 | - 2005년 11월 이전 협상 타결 목표 |
| | 일본 | - 정부간 협상개시(2004.12), 2005년 말까지 타결 목표 |
| FTA 타결 | 칠레 | - 공식서명(2003.2), 국회비준(2004.2), 발효 (2004.4) |
| | 싱가포르 | - 2004년 11월 타결, 2005년 말부터 FTA 발효. |
| | EFTA | - 2006년 7월 타결, 2006년 7월1일 FTA 발효 |
| 기타 | 한중일 | - 중국 제안(2002.11). -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공동연구 진행. |
| | 태국 | - 2001년 공동연구 종료 후 진전 없음. - 태국은 태·한 FTA 논의 재개 요청 중. |

* 자료 :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6].

<표 1>에서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ECA)이란 관세자유화 대상을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형태로, FTA의 중간단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멕시코는 일본과는 FTA를 체결했지만, 우리나라와는 무역적자의 확대를 우려해서 이를 꺼리고 있다. 또한 일본은 ASEAN+3에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을 참여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이미 타결된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4개국)을 포함해 연내 타결 예정인 아세안(ASEAN·10개국)과 캐나다 등 2006년 내에 17개국 이상의 자유무역국가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싱가포르는 아시아 지역 FTA 허부로서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의 중요한 교역파트너이다. 한·싱가포르 FTA 체결로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대동남아 진출 교두보 확보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싱가포르의 경우 대부분 품목이 무관세이므로 관세철폐에 따른 수출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우리 측의 관세철폐로 인한 일부 품목의 수입증가, 제3국을 통한 우회수입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석유제품, 컴퓨터 부품, 일부 기계류 및 전기기기 등의 수입증가가 예상된다.

EFTA는 유럽연합(EU)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서유럽 4개국으로 구성된 무역연합으로 우리나라의 교역 상대국 가운데 20위를 차지하며, 2004년도 한국의 수출액은 8억 6300만달러였고, 수입액은 17억 9400만달러이었으나 한·EFTA FTA 체결로 수출은 약 15억달러 수준으로 늘어나는 반면, 수입도 원동기, 의약품, 정밀기계류 등을 중심으로 상당 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2.1 한·아세안 FTA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과의 FTA 체결은 관세철폐 및 국내 보조 제약 등을 고려할 경우 한국의 농·수산업부문에 대한 피해가 칠레보다도 클 것으로 예상되며, 전기전자는 생산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다. 반면에 자동차 부품, 철강, 화공 등의 생산 규모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세안 자체가 느슨한 조직이며 회원국 사이에 의사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특히 중국, 일본과의 FTA 협상이 먼저 시작됨에 따라 협상진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중국 및 일본과의 협상추이를 지켜보면서 농업부문의 개방 폭과 속도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7].

한편, 한국 정부는 ASEAN과의 FTA가 동아시아 FTA를 고려한 장기적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의 대 ASEAN FTA 추진에 따른 피해 방지 차원에서 ASEAN과 FTA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4].

2.2.2 한·미 FTA

미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가이면서 한국의 정치·경제·안보 면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라는 점에서 미국과의 FTA 체결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협상 진행이 부진한 상태이다.

미국과는 FTA의 전단계라 할 수 있는 투자협정(BIT)도 한국의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로 미체결 상태이다. 스크린쿼터문제의 경우 미국이 한국정부의 시장 개방 의지를 검증하는 하나의 테스트로 부각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

한·미 FTA는 NAFTA, FTAA에 대응해 미국 및 미주 대륙 시장접근을 확보하고 국내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 구조조정 가속화 및 양국간 협력관계 강화 그리고 대외적으로 개방국가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기할 수 있다[8]. 여기서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는 미국의 최우선 정책과제 중 하나로써 이는 MERCOSUR-EU 자유무역협정 협상 결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편 MERCOSUR는 2004년 7월에 멕시코와도 FTA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의 리더격인 미국은 싱가포르, 요르단, 이스라엘, 칠레와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모로코, 호주, 태국과도 협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미국의 쌍무협정에서 주로 논의되는 이슈로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 노동,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투자, 환경 등 포괄적이다.

한편, 미국 의회에서 한국과의 FTA를 지지하는 의원들은 주로 농산물 수출지역 출신이라는 점에서 향후 FTA가 추진되면 농산물 시장개방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며 아울러 영화, 금융, 의료, 교육 등 서비스 산업 개방과 함께 각종 정부 규제, 수입품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국내제도, 비경쟁적 시장관행 등의 시정을 요구할 것이다[5]. 따라서 우리나라는 FTA 체결 대상국가로서의 미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미 FTA협상에 대비해서 수입이 예상되는 농업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교육, 의료, 법률, 금융 등 서비스 부문에서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하며, 또한 우리 측의 적극적인 시장개방 의지를 보임과 동시에 미국 기업인, 연구소 등을 통한 여론 조성 작업이 필요하다.

2.2.3 한·중·일 FTA

한·중·일 3국은 인구가 밀접하고 문화적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는데다가 한국과 일본의 경쟁적 생산구조, 최근 중국의 부상 등으로 인한 중복투자과 과당경쟁의 문제를 안고 있어 경제통합의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는 일본과 동아시아 전체를 하나의 공동체(Asian Community)로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이는 양지역간 FTA 추진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 한·일 FTA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거대시장 접근 확보, 중국에 대응해 한일 기업간 전략적 제휴 강화, 미국·중국 등과의 FTA 유도 등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자동차, 기계, 중소부품업체 등 경쟁력 취약부문의 피해, 일본 소비자들의 국산품 선호 등으로 FTA를 체결해도 수출증가가 힘들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며, 아울러 역사문제 등 비경제적 이슈로 과거사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GDP 규모나 거리의 인접성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한 국가로 보이나 무역구조가 한국과는 수출, 수입에 있어 경쟁적이라서 무역보완도가 낮다. 아울러 일본은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산업간 교역(inter-industry trade) 형태를 띠고 있어 FTA 체결 후 한국제품의 일본 시장 내에서의 비교우위가 없는 상황에서 일본제품의 한국시장에서의 비교우위만을 확보시켜 줄 수 있는 위험성이 클 수 있다.

한편, 중국은 ASEAN FTA 및 대 홍콩 CEPA의 조속한 발효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동북아 FTA보다는 ASEAN과의 FTA를 우선시하고 있고, 다자간 FTA보다는 양자간 FTA를 중요시하고 있다. 여기서 중국과의 FTA는 수출시장, 중복투자, 비관세장벽 등과 같은 단순한 경제적 차원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온 우리나라 외교정책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는 전기가 된다는 측면에서 외교·안보적 측면의 고려도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 산업계에서는 중국의 수출시장이 크고 관세율이 높은데다가 각종 비관세장벽도 많아 FTA 체결시 수출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중국과의 FTA는 농·수산물 분야의 수입개방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동시에 중저가 공산품에서도 상당한 수입증가가 예상되고 우리경제의 중국에 대한 의존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중·일 FTA는 성장하는 중국시장 확보, 일본과의 협력으로 기술우위 유지, 국내산업의 구조조정 가속화, 동북아 경제중심 전략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중국은 최근야 WTO에 가입한데다가 국내제도 선진화가 미비한 상태이며 일본과 아시아 지역의 맹주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 한·중간, 중·일간 혹은 한·중·일 FTA 체결은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9].

III. 한·칠레 FTA의 평가와 시사점

3.1 한·칠레 FTA의 평가

한·칠레 FTA는 한국의 첫 번째 FTA로서 1999년 11월 양국이 FTA 추진에 합의한 후 약 3년간의 협상과정을 거쳐 2002년 10월에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이후 우여곡절 끝에 2004년 2월 국회의 비준을 받음으로서 5년여만에 2004년 4월 1일자로 발효되었다. 따라서 칠레와의 FTA가 어떠한 성과를 거두는가에 따라 여타 국가와의 FTA 추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칠레 FTA 발효 1년간의 교역동향 변화와 문제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0].

한국의 입장에서 칠레를 첫 파트너로 선정하게 된 이유는

첫째, 양국간 산업에 높은 보완성이 존재하는 점,

둘째, 7개의 남미 국가들과 이미 FTA를 맺고 있는 점을 활용하여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점,

셋째, FTA 체결 후 가장 우려가 되는 농업, 특히 과일 산업 등이 계절의 반대로 수확기가 다름으로 농산물 수입으로 인한 마찰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

넷째, FTA know-how 가 축적된 칠레를 통한 경험 축적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칠레의 경우는 동아시아 교두보 구축 등의 이유와 FTA 확산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을 아시아 최초의 대상국으로 선정하였다[11].

한편, FTA 내용을 보면 농·수산, 제조, 서비스를 포함한 전 산업이 자유화 대상이며 투자, 무역규범, 정부조달, 지적재산권까지 포함된 포괄적인 FTA이다. 그러나 양측의 관심 품목인 사과, 배(칠레)와 세탁기(한국)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금융기관 투자 관련 사항도 FTA 발효 후 4년 뒤에 재협의를 함으로서 FTA의 주요 자유화 관심분야의 개방이 후퇴한 것은 유감스러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경쟁도를 측정하는 지수로서는 특정 상품의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RCA를 들 수 있다.

$$\text{수출RCA} = \frac{\text{특정 국가의 특정품목 수출액} / \text{특정 국가의 수출총액}}{\text{세계의 특정품목 수출액} / \text{세계의 총수출액}}$$

(수입 RCA는 수출 대신에 수입을 대입)

여기서 $RCA > 1$ 이면 비교우위가 있으며 $RCA < 1$ 이면 상대적으로 비교열위라고 볼 수 있다. RCA 지수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한국과 가장 경쟁 상품이 많은 국가는 일본으로서 자동차·전자·조선 등에서 특히 경쟁정도가 심하다.

한·칠레의 교역량을 보면 FTA 발효 이후 즉시 관세가 철폐된 품목을 중심으로 엄청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즉, 한국은 공산품 중 휴대폰(226%), 자동차(59%), 컬러TV(97%) 등 대칠레 수출액의 66%를 차지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은 7.4억 달러로 58.6%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입은 동과그제품(64%), 직철광(930%), 화학목적펠프(15%) 등 천연자원을 중심으로 17.5억 달러로 54.3%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 따라서 무역수지 면에서는 약 2억 달러가 개선된 10.2억 달러 적자로 나타나 칠레와 한국 모두 win-win이라는 설명이 설득력이 있다. <표 2 참조>

표 2 한·칠레 FTA 발효 후 대칠레 교역현황
Table 2. Trade status after become effective Korea · Chile FTA
(단위: 백만 달러)

| | 2002년 | 2003년 | 2004년 | FTA 발효 이후 (2004.4 ~ 2005.2) |
|------------|----------------|----------------|-----------------|-----------------------------|
| 수출 (증가율) | 454.0 (-20.7) | 517.2 (13.9) | 708.3 (36.9) | 734.8 (58.6) |
| 수입 (증가율) | 753.9 (8.3) | 1,057.7 (40.3) | 1,933.5 (82.8) | 1,752.8 (54.3) |
| 무역수지 (증가율) | -299.9 (142.8) | -540.5 (80.2) | -1225.3 (126.7) | -1,018.0 (51.3) |
| 총교역 (증가율) | 1,207.9 (-4.8) | 1,574.9 (30.4) | 2,641.8 (67.7) | 2,487.6 (55.5) |

주)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한국무역통계 참조12).

<표 2>에서 품목별 ()의 숫자는 FTA 발효 후 2004년 4월~2005년 2월까지 전년대비 증가율이며, 한국과 칠레는 품목별로 각각 94.5%와 96.5%에 대한 수입관세를 10년 이내 완전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칠레와 FTA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컸던 품목은 농업, 특히 과일산업의 피해에 대한 우려였다. 칠레와의 FTA 협상과정에서 칠레측은 모든 농업품목이 자유화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협상이 난항을 겪었으나, 우리나라에게 가장 민감한 쌀, 사과, 배 등 과일류 일부 품목을 자유화 대상에서 완전 제외시킴으로써 우리 농업계의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은 칠레 측에 대해 냉장고 및 세탁기 등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게 되었다.

FTA 체결로 과일시장이 개방되면 칠레산 과일의 수입 급증으로 우리 농가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실제로 양허기간이 5년으로 되어있는 포도주의 경우 FTA 이전에 6.8백만 달러에서 FTA 이후에는 7.6백만 달러로 11.8% 증가에 그쳤으며, 양허기간이 10년(계절관세)인 포도의 경우에는 13.1백만 달러에서 10.9백만 달러로 오히려 2.2%가 감소했다. 실제로 한국의 적포도주 수입 동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참조>.

표 3 한국의 적포도주 수입 동향
Table 3. Import trend of red wine of Korea

| | 2003년 | | 2004년 | | FTA발효이후 | | |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증가율 |
| 전체 | .0 | | 442 | | 422 | | 269 |
| 프랑스 | 18.0 | 54.7 | 21.3 | 48.1 | 19.2 | 45.4 | 6.7 |
| 칠레 | 2.4 | 7.2 | 6.8 | 15.4 | 7.6 | 18.7 | 169.7 |
| 미국 | 5.6 | 16.9 | 6.7 | 15.1 | 6.2 | 14.8 | 12.8 |
| 이탈리아 | 3.1 | 9.3 | 3.5 | 7.9 | 3.6 | 8.5 | 25.4 |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이며, 단위는 백만달러임.
자료) 무역협회(<http://www.kita.net>), 한국무역통계 이용 자체추계
참조) 이홍식, 강준규, 전계서, 재인용, p.35

그러나 대부분의 품목을 단계적 철폐로 두고 있어 과일 시장 개방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의 기회로 삼아 그 대비책에 힘써야 할 것이다. 참고로 우리 농산물의 양허안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13]. <표 4 참조>

표 4 농산물 양허안 개요
Table 4. Consent draft of farm products.

| 카테고리 | 적용대상 및 품목의 예 |
|--------------|--|
| 즉시 | 종유, 종돈, 시탕수수, 사료첨가제, 배합사료, 밀, 호밀, 수수 등 |
| 5년 철폐 | 당류, 포도주, 초코렛, 면류, 로얄제리, 닭, 배추, 상추, 무, 죽순 등 |
| 7년 철폐 | 복숭아 통조림, 종자용 옥수수, 감자, 호두, 완두콩, 칠면조고기 등 |
| 9년 철폐 | 기타 과일주스 |
| 10년 철폐 | 복숭아, 도마토, 건포도, 메론, 포도즙, 돼지고기, 양고기, 단감 등 |
| 16년 철폐(1) | 조제분유, 혼합주스사과, 포도, 기타과실, 조제식품 등 |
| TRQ+DDA(2) | 쇠고기, 닭고기, 유장, 자두, 감귤, 맨더린, 기타채소 등 |
| DDA 이후 논의(3) | 고추, 마늘 등 양념류, 보리 콩 등 곡류, 냉동 돼지고기, 버터 등 |
| 계절관세(4) | 포도 |
| 예외 | 쌀, 사과, 배 |

주) (1) 5년 후 협상개시, 1년 협상, 최장 10년 관세철폐
(2) TRQ 물량에 대해 무관세 적용, DDA 타결 후 논의
(3) DDA 타결 후 논의
(4) 일정기간(11월4월)에만 관세 철폐(10년 균등)

3.2 한·칠레 FTA의 문제점과 시사점

3.2.1 문제점

한·칠레 FTA는 정부, 정치권, 국민, 관련사업계, 농민 단체, 시민 단체 등을 망라하여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남겼으며, 이는 향후 여타 FTA 추진에 있어서 좋은 학습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기본적으로 FTA에 대한 경험이 없는데다가 무엇보다도 국내 경쟁열위 산업의 개방에 대한 저항이 이를 더욱 가중시킨 점이 있다. 한·칠레 FTA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정부와 관련업계, 농민단체 등 이익집단, 시민단체 사이의 계층간 충돌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우었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예로 정부는 반대하는 농민단체를 설득하기 위해 협정에 따른 피해가 10년간 최대 5,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반면 직접적인 피해보상 기금만 하더라도 7년간 1조 2천억원을 책정함으로써 이러한 전례는 추후 진행될 FTA에서 예상되는 국내피해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있어 나쁜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추진기구의 취약성이다. 정부추진기구가 취약하여 (통상교섭본부 FTA과) 이해 관련부서를 통합·컨트롤할 만한 시스템이 되어있지 않은데다가 전문인력의 이동이 잦아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협상내용에 대한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셋째, 정치적 리더십의 미약이다. FTA 추진에 수반되는 이해집단간 갈등조정에는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3년간의 협상진행 과정에서의 전임 대통령의 역할이 미흡하여 농민단체의 과도한 예외인정 요구로 협상이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적극적인 조정활동은 거의 없었다. 넷째, 추진절차의 미확립이다. 대상국 선정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도출 과정이 미흡함에 따라 협상진행 과정은 물론 체결 이후에도 대상국의 적절성 여부가 문제시되었으며, 또한 협상추진, 산업간 이해조정, 대국회 비준동의 등 FTA 추진과정이 제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 확보 문제가 제기 가능하다[8].

이 외에도 문제점으로써 자본주의의 근간인 자유경쟁원리와 원칙을 벗어나는 보상 요구를 정치 논리에 의해 수용함으로써 이익단체의 남비현상 같은 지나친 현상이 나타난 점을 들 수 있으며[16], 아울러 국가적 이득이 큰 대외 정책에 걸맞는 홍보정책이 미약하여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실패 또는 지연된 점과 정부 협상 종료 후 국회비준에만 1년여 걸림으로서 정치권의 대외신인도가 하락한 점 등은 향후 우리나라가 FTA 추진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3.2.2 시사점

위에서 살펴본 문제점 및 교훈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첫째, 농업과 피해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국의 광범위한 사례 조사와 함께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둘째, 정부 내 FTA 부서의 권한 강화와 기구 확대 및 전문인력의 보강 등이 절실하다.

셋째, 농민, 시민단체를 비롯한 모든 관련자들과 국민에 대한 홍보기능을 강화하여 설득과 승복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변화된 국제적 정치·경제 환경에서 각 opinion leader 들의 책임과 소명 의식이 절실히 요구되며

다섯째, 국민들도 성숙된 선진시민으로서 남비현상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국이 개방화 시대의 주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FTA 체결시의 무역 효과분석(사전)과 실제 실적 사이의 오차를 정확히 규명하여 좀 더 사실적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한·칠레 FTA 무역효과와 관련 국내의 연구기관(KIEP, 한은 등)들은 부분균형분석방법(Armington 모형계열)과 연관효과를 망라하여 측정하는 일반균형분석방법(CGE 모형계열)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어느 분석방법에도 불구하고 한·칠레 FTA를 포함한 기존의 연구(NAFTA 또는 WTO 관련)에서 수출입 결과와 예측 연구의 차이(bias)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오차 발생의 원인은 산업적 특성 즉, 신규 혁신 상품의 등장과 brand 효과에 따라 산업과 무역의 형태가 바뀌고 있는 점에서 찾아 볼 수 있고, 이것은 FTA 체결 상대국 후보를 선정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한·칠레 FTA를 계기로 칠레를 거점으로 하는 중남미시장 진출 교두보로 활용해야 한다. 중남미는 최근 세계의 통상환경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의 하나로서 33개국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시장이며[14], 국가별 경제력 차이뿐 아니라 물적·인적 인프라의 발전 정도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사이의 경제

통합에 의한 협력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 총 5억의 인구와 약 2조 달러의 GDP규모를 자랑하는 거대시장으로써 주의 깊은 접근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시장은 한국 기업의 진출이 부진하고 경험이 비교적 없는 지역이다. 여기에는 여러 다양한 위험성과 함께 중남미 국가들 가운데 브라질만이 포르투갈어(Portuguese)를 사용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스페인어(Spanish)를 사용함으로써 언어장애가 존재하는 지역이라는 인식으로 중남미 시장에 대한 진출과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IV. 결론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성장 속에서 국제사회질서의 주도국이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상대국을 선정하여 FTA 체결국을 확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FTA는 WTO를 통한 범세계적, 의무적 무역자유화와 달리 그 체결이 강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발적인 협상이며 WTO의 다자간 협상보다 무역자유화의 범위가 넓고 속도도 빠르다[15].

한국은 이미 타결된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4개국)을 포함해 연내 타결 예정인 아세안(ASEAN·10개국)과 캐나다 등 2006년까지 17개국 이상의 자유무역국가를 확보할 예정이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2004년 4월 최초로 한·칠레 FTA를 발효하면서 중남미 진출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중남미 시장은 한국 기업의 진출이 부진하고 경험이 비교적 없는 지역이며 다양한 위험과 언어장애가 존재하는 지역이라는 인식으로 중남미 시장에 대한 진출과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한·칠레 FTA는 정부, 정치권, 농민 단체, 시민단체 등을 망라하여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남겼으며, 이는 향후 여타 FTA 추진에 있어서 좋은 학습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기본적으로 FTA에 대한 경험이 없는데다가 국내 경쟁열위산업의 개방에 대한 저항이 이를 더욱 가중시켰다. 이 밖에도 교훈적 문제점으로 생각되는 점은 FTA 추진기구가 취약하여 이해 관련부서를 통합·컨트롤할 만한 시스템이 되어있지 않은 점, 정부의 홍보부족으로 국민의 공감대 형성에 실패 또는 지연된 점, 정치적 리더십의 미약으로 협상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 그리고 협상 종료 후 국회비준에만 1년여 걸림으로서 정치권의 대외신인도가 하락한 점 등은 향후 우리나라가 FTA 추진시 교훈으로 삼아야 할 시사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한·칠레 FTA 발효 이후 대칠레 수출 동향을 분석해보면 발효 초기보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수출이 점점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동차, 핸드폰, 컬러TV 등 FTA 협상 과정에서 수출증가를 기대했던 품목들이 칠레 측의 즉시 철폐 품목에 상당부분 포함되고 있어 높은 수출증가율을 나타내는 등 기대성과를 어느 정도 충족해 나가는 것으로 평가된다. 수입의 경우는 FTA 발효 초기에는 급격한 증가 현상을 나타내었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차 안정적인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우려하던 농·수·축산품의 수입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이는 대칠레 수입에서 농·수·축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농산품의 약 56%와 임산품의 42% 및 축산품의 약 31%가 단계적 철폐품목으로 양허하였기 때문에 FTA 발효에 따른 충격이 아직까지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칠레는 환경적(경제구조, 가격경쟁력, 언어 등) 측면이나 정책적(생활환경, 정치 및 제도, 해외투자 등) 측면 및 지정학적(아르헨티나, 페루, 볼리비아와 국경, 항만, 철도 등) 측면에서 우리나라 산업이 중남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 활용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중남미 각국에 대한 철저한 시장조사와 각국 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박순찬 외, "FTA의 득과 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 [2] 김영철, 김종권. "한국의 FTA 정책방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2004 추계학술대회 논문지, 국제지역학회, 2004.
- [3] 이근영, 「국제무역개론」, 서울: 무역경영사, 2004.
- [4] 전용욱, 김주현, 윤동진, 「국제경영」, 서울: 문영사, 2003.

- [5] 정인교, 정제화, “한·칠레 FTA 협정의 평가와 교훈 및 향후 FTA 추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2004 춘계 학술대회 논문지, 국제지역학회, 2004
- [6], [13] 정인교, “한·칠레 FTA의 주요 내용”, 외교통상부 -KIEP, 2003.
- [7] 임윤상,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와 향후 추진 방향”, 한국은행, 2002
- [8] 심형섭, 하병기, 「개방형 신 통상 국가론, 서울: 산업연구원, 2002.
- [9]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의 중장기 전망 2010”, 2003.
- [10] 이홍식, 강준구, “한국·칠레 FTA 발효 후 교역동향 분석”, 2005 춘계학술대회, 국제 지역학회, 2005.
- [11] 이주태, “한·칠레 FTA의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2005 경제학공동학술제 발표논문, 한국경제학회, 2005.
- [12]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한국무역통계. 2004, 2005.
- [14] 전용욱, 이정화, “한·칠레 FTA 이후 중남미 시장진출 전략”, 2005 춘계학술대회, 국제지역학회, 2005.
- [15] 하병기, 「제조업 해외투자의 평가와 과제」, 산업연구원, 2004.
- [16] WTO, “Market Access: Unfinished Business”, Special Studies 6, 2000.

저자 소개

이근영

1969년 중앙대학교 경제학과(학사)
 1986년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석사)
 1993년 세종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경제학박사)
 2003년 동국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1972년~1993년 (주)LG전자 수출부장, 칠레지사장, 파나마현지
 법인장.
 1993년~1995년 (주)A & C
 International Inc. 이사.
 1996년~현재 경원전문대학 비서과
 교수
 <관심분야> 국제경제, 국제무역,
 교육행정

